

Issue Briefing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41007 vol.137

전라북도 문화시설 조성 성과와 과제, 새로운 방향 모색

연구진

장세길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임승현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4년 10월 07일 vol.137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전라북도 문화시설 조성 성과와 과제, 새로운 방향 모색



1. 전라북도 문화시설정책 현황	03
1) 문화시설 조성의 성과와 과제	03
2) 시군별 문화시설 분포 현황	06
2. 문화시설정책의 새로운 흐름	08
3. 전라북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09
1) 문화시설의 재분류 및 기능부여	09
2) 민간시설의 공공화 및 신규건립 지원	12
3) 유사 시설과의 기능적 연계	13
4) 새로운 '융합형 문화시설' 도입	14
5) 주요 수요층을 반영한 문화시설의 최적입지 선정	17



전라북도 문화시설 조성 : 성과와 과제, 새로운 방향 모색

■ 전라북도 문화시설 조성의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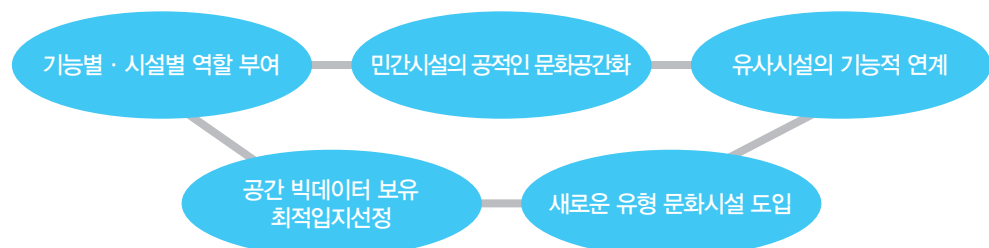
- 정부가 정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했으며, 대부분의 시설에서 전국 평균을 앞섬. 특히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작은공간' 시리즈는 전국 최고 수준
- 유일하게 미술관이 전국 평균에 미달했으나, 2013년부터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을 통해 미술관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
- 하지만 시설 대부분이 시(특히 전주)에 집중되어 있어 시군 간 불균등 배치. 지자체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 동지역과 면지역의 편차가 커 균형있는 시설조성 필요
 - 전주시 예시 : 완산구는 시청, 덕진구는 덕진동 주변에 집중 분포. 이에 반해 서부신시가지, 송천동, 호성동 등은 거주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 문화시설정책의 새로운 흐름

- 정부의 문화시설정책은 '돈 없는'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재생'과 '효율성'이, 생활문화를 강조하면서 '일상성'과 '다기능성'을 중요시
- 새로운 유형의 융합형 문화시설과 민간시설 활용방안에 주목

■ 전라북도 문화시설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첫째, 주민이 필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시설의 '기능'. 기초예술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별(전문예술거점, 생활문화거점, 문화지원시설)로 시설을 분류하고, 시설별 역량과 위치를 고려해 각 시설의 역할을 부여, 특화시키는 전략 필요
- 둘째, 공공 문화시설의 확충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 문화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설(예 : 동네가게, 서점, 카페, 병원, 이·미용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적인 문화공간화를 추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차원의 문화시설 건립 활성화 유도
- 셋째, 문화·교육·복지·체육·행정 분야의 유사시설을 기능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부족한 시설과 기능을 보강. 기능별 문화시설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문화시설 간 프로그램 중복 해소 등,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되도록 운영
- 넷째, 문화·예술테라피 전문시설, 해양문화시설(해양수산물 계획),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융·복합공간(새로운 유형의 생활형 문화공간)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을 도입하거나, 이러한 유형의 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추진
- 다섯째, 시설의 공간적 불균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된 잠재적 수요자의 공간적 분포와 주요동선을 근거로 문화시설의 최적입지를 선정



1. 전라북도 문화시설정책 현황

1) 문화시설 조성의 성과와 과제

■ 문화기반시설 조성은 양호, ‘작은공간’은 대표브랜드로 정착

- 2014년 6월 말 기준¹⁾,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원)²⁾ 조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임실군(문예회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진안군(공공도서관), 정읍시·장수군·순창군(공립박물관·미술관)에 일부시설이 미조성됨
- 문화기반시설 외의 생활문화시설 조성도 양호한 수준임
 - 작은도서관은 전체 116개가 조성되었으나, 도시에 집중됨(시에 83개 조성)
 - 영화관은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으로 모든 지역에 확보됨(완주군·진안군·순창군은 올해 개관)
 - 야외공연장은 문예회관 등의 부속시설로 확보돼 있어 상대적으로 확보율이 높음
 - 사설문화센터는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전라북도 문화시설(국공립·교육청·사설 포함) 분포 현황 (2014.06 기준, 전라북도 내부자료 참조)

구분	문예 회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문화의 집	문화원	등록 공연장	영화관 (스크린)	사설 문화 센터	창작 스튜 디오	문 화 관	야외 공연장	전수 교육관
		지자체	교육청		미등록시설 제외											
계	17	40	18	116	39	15	8	17	14	23	25(87)	17	22	8	53	14
전주	5	13	1	26	9	3	13	5	1	12	12(46)	4	4	2	26	1
군산	1	4	2	12	2	1	5	—	1	4	2(12)	—	—	1	6	2
익산	1	4	2	17	8	1	1	—	1	1	4(9)	6	1	—	1	1
정읍	1	4	1	10	5	—	2	1	1	1	1(4)	—	1	—	3	1
남원	1	1	2	10	1	1	3	—	1	4	1(4)	3	6	1	2	2
김제	1	3	2	8	2	1	—	4	1	—	1(2)	1	1	1	4	1
완주	1	4	1	6	3	2	3	1	1	—	—	1	2	—	1	—
진안	1	—	1	4	1	1	—	1	1	—	—	—	1	—	—	—
무주	1	1	1	3	1	2	—	1	1	—	1(2)	—	1	1	1	—
장수	1	1	1	3	—	—	1	1	1	—	1(2)	1	—	—	1	—
임실	—	1	1	8	1	—	5	2	1	—	1(2)	—	—	—	2	1
순창	1	—	1	2	2	—	—	1	1	1	—	—	—	—	1	1
고창	1	2	1	5	2	1	—	—	1	—	1(2)	1	5	1	2	2
부안	1	2	1	2	2	2	5	—	1	—	1(2)	—	—	1	3	2

※ 작은도서관 : 직영 32, 사회단체 33, 주민자치 48, 학교개방 3, 특성화 3

※ 박물관 : 국립 1, 공립 25, 대학 6, 사립 7 / 미등록 10개(공립 8, 대학 2)

※ 사설갤러리 : 등록미술관 수와 중복(규모 82㎡ 이상 24개소(갤러리21, 미술11, 문화예술공간2, 아트센터2, 전시관1, 예술촌1))

※ 영화관 : 작은영화관 6(김제,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개관 예정 2개(진안, 완주)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국가 6, 도 8

1) 문화시설 현황자료는 2014년 6월 기준의 전라북도 내부자료임. 그런데 일부 시설의 경우 시군 자료통합과정에서 분류가 통일되지 못해 중복 파악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없지 않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문화시설 조성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할 것임

2)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당초 문화의집이 포함돼 있었으나 참여정부 시절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되면서 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됨

■ 대부분의 시설이 정부 기준을 초과해 확충, 문화의집은 절대적으로 부족

- 정부 배치기준과 전라북도 분포현황을 비교해보면(표 3 참조), 공공도서관은 인구수 대비 양적인 면에서 문화부 최소기준을 상회함.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부 시군과 교육청 소관 도서관 시설이 소규모이거나 노후화되어 있어 현대식 개념의 도서관 건립과 디지털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도서관 환경에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문화시설의 배치기준				
· 정부의 문화기반시설 배치기준(2012~2016 중기재정계획)				
〈표 2〉 문화부, 문화시설 배치기준(안) : 문화부 중점관리 4대 시설				
구 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최소기준	인구	인구10.5만명당1관	기초 시·군당 1관	기초 시·군당 1관
※ 교육청 시설포함, 사립·대학 시설 제외				
· 문화의집의 배치기준 : 2004년 문화관광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의집의 최소기준은 인구 5만 명당 1개소(연면적)이며, 5만 명 미만인 지자체는 교통(접근성)을 고려해 지자체별 1개소임(참여정부 문화정책비전인 『창의한국』(2004)에서는 인구기준(5만명) 50% 초과 시 1개소 추가)				
· 작은도서관 :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조성목표는 80개임				

- 대부분의 시설은 정부 배치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공립미술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사립미술관을 포함할 경우 미술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님
- 문화의집은 정부가 읍면동별 1개소씩 배치한다는 장기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참여정부 시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추진이 미진함. 특히 지자체가 운영비 확보에 난색을 표하면서 시군별 1개소 조성 조차 어려운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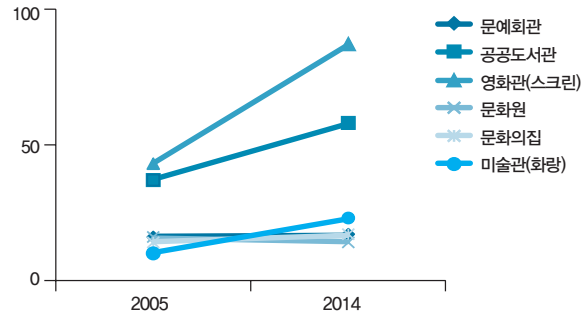
〈표 3〉 문화부 설정 기준에 따른 전라북도 시설 확충 현황 (2014.6월말 기준)

구분	공공도서관 (교육청 포함)			박물관·미술관 (사립 포함)			문예회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작은도서관		
	문화부 기준	건립수	과부족	문화부 기준	건립수 (박물관/ 미술관)	과부족	문화부 기준	건립수	과부족	문화부 기준	건립수	과부족	문화부 기준	건립수	과부족	민선5기 목표	건립수	과부족
전북	40	58	18	24	54 (39/15)	30	14	17	3	39	17	Δ22	14	14	-	80	116	36
전주	13	14	1	6	13(4/2)	74	1	5	4	12	5	Δ7	1	1	-	20	26	6
군산	6	6	-	3	3(1/0)	-	1	1	-	6	-	Δ6	1	1	-	7	12	5
익산	6	6	-	3	9(5/0)	6	1	1	-	6	-	Δ6	1	1	-	15	17	2
정읍	2	5	3	2	5(5/0)	3	1	1	-	2	1	Δ1	1	1	-	4	10	6
남원	2	3	1	1	2(1/1)	1	1	1	-	2	-	Δ2	1	1	-	5	10	5
김제	2	5	3	1	3(2/1)	2	1	1	-	2	4	2	1	1	-	6	8	2
완주	2	5	3	1	5(0/1)	4	1	1	-	2	1	Δ1	1	1	-	6	6	-
진안	1	1	-	1	1(1/0)	-	1	1	-	1	1	-	1	1	-	4	4	-
무주	1	2	1	1	3(1/2)	2	1	1	-	1	1	-	1	1	-	2	3	1
장수	1	2	1	1	-	Δ1	1	1	-	1	1	-	1	1	-	3	3	-
임실	1	2	1	1	1(1/0)	-	1		Δ1	1	2	1	1	1	-	3	8	5
순창	1	1	-	1	2(2/0)	1	1	1	-	1	1	-	1	1	-	2	2	-
고창	1	3	2	1	3(2/1)	2	1	1	-	1	-	Δ1	1	1	-	2	5	3
부안	1	3	2	1	4(1/0)	3	1	1	-	1	-	Δ1	1	1	-	1	2	1

* 박물관/미술관은 지자체와 교육청 시설만 포함. 사립/대학시설은 제외(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적용)

■ 10년 전과 비교해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화랑) 증가

- 2005년(12월 기준)과 2014년(6월 기준) 조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화랑)이 증가했으며,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은 큰 변동이 없음
- 사립미술관(화랑) 제외한 공공미술관만 놓고 보면 2005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



〈표 4〉 전라도 문화시설 분포의 변화 추이 (2005년 : 2005.12.31 기준, 2014년: 2014.06.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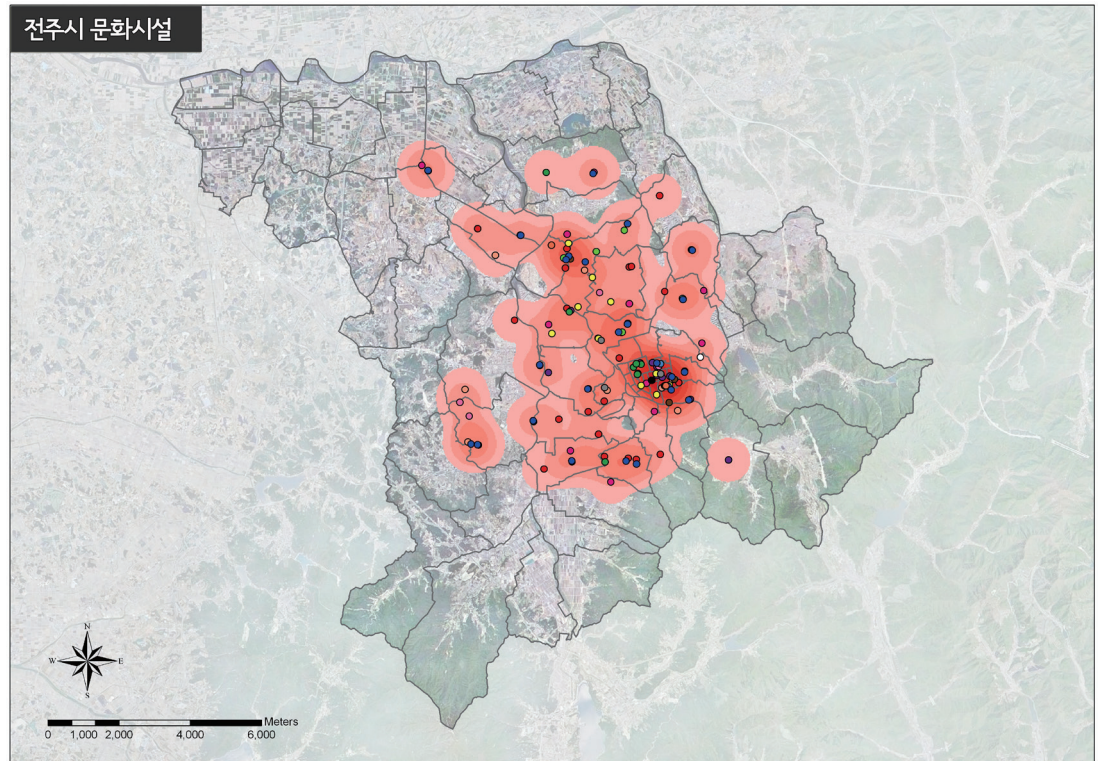
시군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지자체, 교육청 포함)		영화관 (스크린수)		문화원		문화의 집		미술관 (시설화랑 포함)	
	2005	2014	2005	2014	2005	2014	2005	2014	2005	2014	2005	2014
계	16	17	37	58	43	87	14	14	14	17	10	23
전주	5	5	6	14	22	46	1	1	6	5	6	16
군산	1	1	4	6	8	12	1	1	—	—	—	6
익산	1	1	4	6	9	9	1	1	1	—	—	2
정읍	1	1	3	5	3	4	1	1	1	1	—	2
남원	1	1	2	3	1	4	1	1	—	—	1	4
김제	1	1	4	5	—	2	1	1	—	4	1	1
완주	1	1	3	5	—	(2)	1	1	1	1	1	5
진안	1	1	1	1	—	(2)	1	1	1	1	—	1
무주	1	1	2	2	—	2	1	1	1	1	—	2
장수	—	1	2	2	—	2	1	1	1	1	—	1
임실	—	—	2	2	—	2	1	1	2	2	—	5
순창	1	1	1	1	—	—	1	1	—	1	—	—
고창	1	1	1	3	—	2	1	1	—	—	—	1
부안	1	1	2	3	—	2	1	1	—	—	1	7

* 2005년 자료: 전북발전연구원(2007), 2014년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 시군별 문화시설 공간적 분포 현황

■ 시군별 문화시설 확충 성과 크지만, 지역 간 불균등 분포 여전

- 문화기반시설이 1990년대를 전후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면서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가 밀집돼 있는 신흥 도심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짐
- 전주시의 경우 완산구는 시청, 덕진구는 덕진동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나 서부신시가지와 송천동, 호성동 지역은 거주인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새롭게 조성되는 생활밀착형 시설(예 :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소극장)도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재생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서 구도심 지역에 집중됨



*전주시 외의 13개 시군 문화시설 분포도는 16~22페이지에 있음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문화회관 ● 문화의 집 ● 문화원 ● 공연장(등록) ● 박물관 ● 미술관
● 사설갤러리 ● 영화관 ● 시설문화센터 ● 시민예술촌 ● 창작스튜디오 ● 야외문화광장 ○ 전수교육관 ● 문학관

-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은 정부의 문화기반시설 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생활밀착형 시설, 커뮤니티 공간, 사립문화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대책이 요구됨.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의 경우 면 지역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시지역임에도 지자체 단위의 배치기준에 의해 면 지역주민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음
- 군지역 역시 문화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 면지역이 있는가하면, 문화시설이 조성돼 있다 하더라도 시설 간 거리가 멀어 주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기존 공간을 활용해 거점별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전략이 요구됨

2. 문화시설정책의 새로운 흐름

■ 신규 건립보다 ‘재생’ 과 ‘효율성’ 강조

- 지자체 자율성에 무게를 뒀던 문화시설정책에 변화가 나타남. 정부는 대규모 시설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지자체는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이러한 이유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대두됨. 지자체에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수요에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문화시설의 ‘일상성’ 과 ‘다기능성’ 강조

- 국가재정운영계획(2011~2015)은 “대형문화시설 패러다임을 바꾸어 親주민지역형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접근성·활용도를 높여 지역거점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강도 높게 제시함
-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문화시설이 중요해지고 있고, 문화관람·창작·발표·커뮤니티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문화시설의 다기능성이 강조되고 있음
-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외 타 부처의 사업이 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공간의 복합화, 또는 유사시설과의 기능적 연계 등이 확대되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시설 및 민간시설 활용에 주목

- 문화시설의 고정화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외 영역까지 복합화되고, 여가시설과의 기능적 연계가 두드러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융합형 문화시설이 나타남
- 신규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문화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간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거나 민간시설의 문화공간화에 주목함

3. 전라북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1) 문화시설의 재분류 및 기능부여

■ 필요기능별 문화시설 분류와 문화시설별 역할분담 필요

- 주민이 원하는 것은 ‘시설’ 자체가 아니라 문화시설의 ‘기능’임. ‘시설’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기능’을 우선시한다면 신규시설의 규모나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연해질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작은 공간 조성사업’³⁾을 통해 생활문화의 거점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에 새롭게 요구되는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되는 예술창조거점(전문예술의 창조적 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위한 생활문화공간과 전문예술을 위한 창조공간, 그리고 문화산업 및 문화관광과 연계된 문화콘텐츠공간을 복합적으로 충족시켜야 함
- 기초예술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별로 시설을 분류하고, 시설별 역량과 위치를 고려해 각 시설의 역할을 부여, 특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3) 민선5기 삶의질정책으로 추진: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동네체육시설

일본 요코하마시의 문화창조거점, 지역문화거점, 시민문화시설로 분류한 사례를 통해 본 적용방안

- 요코하마시는 문화시설의 기능을 3가지 규정하고, 기능별로 문화시설을 재분류함
 - ① 예술창조거점 : 창조도시의 핵심, 발신력 있는 문화예술 창조
 - ② 지역문화거점 :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 ③ 시민문화시설 : 시민문화 활동의 장소 제공
- 요코하마의 분류를 우리나라의 최근 경향과 접목해보면,
 - ① ‘예술창조거점’은 ‘전문예술’ 시설로 예술가의 창작공간 및 창조도시 관련시설 등임
 - ② ‘지역문화거점’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하는 ‘생활문화’ 시설로 주민의 문화향유(창작·연습·모임) 공간이자 지역 문화커뮤니티 거점이라고 할 수 있음
 - ③ ‘시민문화시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전문예술인의 발표·전시 또는 주민의 문화관람(전시·공연)과 관련된 시설로 문예회관 등이 해당됨
- ‘기능’에 따라 문화시설을 특화시키는 요코하마 사례를 전라북도 문화시설 정책에 적용해보면 문화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표 5〉 기능별 문화시설 재분류 (전주시 사례)

시설구분		주요기능	전주 문화시설
전문 예술 거점	전문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인을 위한 핵심시설로, 지역의 예술적 선진성을 보여주는 지역예술의 산실 기능 · 전문예술의 창작공간으로 전북예술진흥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단체연계 소극장 · 레지던스 시설 · 창작스튜디오 등
	문화 창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도시로서 전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시설(전통문화도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 역사적 건축, 창고 등을 활용, 예술가에게 레지던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문예술거리 (창작지원센터)
생활문화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가깝게 문화예술에 접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와 인재육성 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커뮤니티 핵심이 되는 거점 시설 · 감상, 창조, 육성, 문화자원봉사활동, 전시·발표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뤄지고 핵심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문화의집 · 전주시민놀이터 · 공공/작은도서관 · 공공박물관 · 사설문화센터 등
문화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규모가 큰 전문예술인의 발표·전시 또는 주민의 문화관람(전시·공연)과 관련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전북예술회관(전시관)

※ 横滨市市民局(2010) 참조해 연구자가 재구성

■ 문화시설의 기능별 역할과 내용

- 모든 시설이 문화창조 육성, 감성기회 제공, 활동공간 제공, 문화보급·육성, 타 분야의 활용에 대한 기능을 공통적으로 담당하나, 시설별로 강조하는 바가 다를 것임. 따라서 시설별로 명확한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특화 발전시켜야 함

2) 민간시설의 공공화 및 신규건립 지원

■ 생활 속 여가시설의 문화공간화 확대

- 동네서점이나 세미나실, 화장실, 카페, 식당, 백화점, 찜질방 등은 집과 직장이 아니면서 정기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현대 문화소비를 반영한 제3의 문화여가시설로 변화함
- 가장 변화에 민감한 곳이 카페(cafe)임⁴⁾
 - 새로운 문화소비 행태에 힘입어 북카페, 디자인카페, 갤러리카페 등의 형태로 과거의 문화사교 장소로서의 역할복원이 이루어지면서 문화공간이자 사교공간의 기능을 회복함

■ 최소한의 지원 통한 ‘동네가게’의 문화적 공공화 추진

- 민선5기는 삶의 질 정책으로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을 추진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 화랑(갤러리)과 미술관에 예산을 지원(큐레이터 인건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일부)함으로써 생활 속 미술관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미술관의 절대적 부족을 해소함
 - 전라북도 문화시설 중 유일하게 공공미술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음
- 비교적 규모가 큰 문화시설은 중장기적 전략에서 지자체가 건립해야 하지만, 여가와 결합된 생활문화시설의 경우 집과 직장에서 가까운 민간시설을 활용할 필요 있음
-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처럼 생활 속 여가시설(서점, 카페)을 대상으로 주민문화활동공간(예 : 장르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모임공간 제공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시설의 문화적 공공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시설(특히 생활 속 여가시설)의 문화적 공공화 사업은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新도심지역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동네가게의 문화공간화 사례
 - ‘동네서점’을 지향하는 ‘뽕스북스(Thanks Books)’는 각 분야의 주목할 만한 책, 신뢰할 수 있는 출판사의 엄선된 책들을 갖춘 서점임. 서점에서는 음료를 판매하고 전시회 개최할 뿐만 아니라 독서학교, 출간 기념 토크와 북 워크숍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해 책과 관련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음⁵⁾

■ 민간 차원의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 추진

- 공공시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의 공익적 우선순위 확보문제로 인해 공급에 한계를 보임. 이런 이유에서 민간문화시설 건립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이 주목받음
- 다만, 민간문화시설은 투자자 모집을 통한 투자금 확보의 수월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문화시설 건립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민간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제도적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음.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문화시설 건립 시 행·재정지원이 가능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3) 유사 시설과의 기능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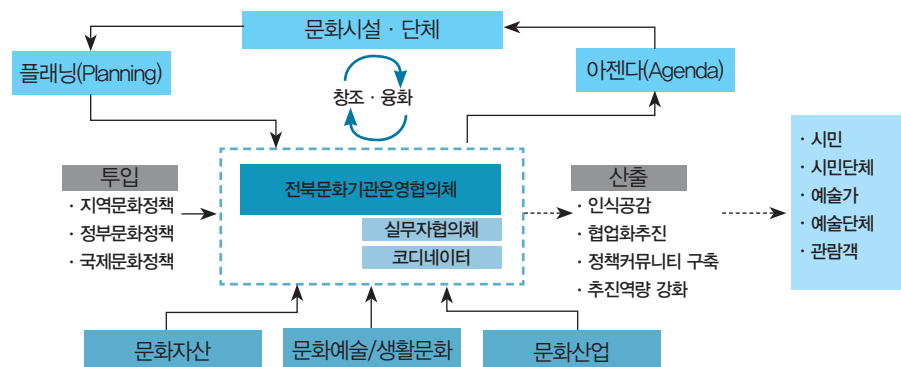
■ 문화, 교육, 복지, 의료, 행정, 관광시설 간 연계 부족 및 프로그램 중복

4) 김효정(2013). ‘생활밀착형 문화·여가시설 확충’ 참조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4 문화예술 트렌드분석 및 전망」 참조

- 동일한 지역 내 문화, 복지, 교육, 행정, 관광시설이 중복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처가 다르고(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설립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함
 - 대표 사례 :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이 '문화활동 장소제공'임에도 관리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으며, 문화동호회 활동장소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행정서비스의 원스톱 통합제공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 외 문화·창조경제 서비스까지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계획서(2014.2.6)에 따르면,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전달체계 전국 확산'을 목표로 가칭) 국민행복센터 설립을 구상함

■ 기능별 문화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기능별로 문화시설이 다양하며, 설립주체도 지자체, 교육청, 민간, 공공재단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을 보임. 이들 시설 중 유사기능별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중복문제 등이 해소됨으로써 운영비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례 : 서울의 자치구 간 문화예술 활동의 편차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축함(2007년 12월)
 - 강남문화재단, 강동아트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금나래아트홀, 노원문화예술회관, 마포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등 13개 회원기관이 참여함
 - 공동기획사업(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문화예술사업(시민문화교육), 교육연수사업(해외 우수사례 연수, 종사자 워크숍),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함
 - 문화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역량 강화, 시설 간의 노하우 교환 및 교류 활성화에 집중함
- 전라북도 공립문화시설·단체의 네트워크로서 (가칭)'전북문화기관운영협의체'를 설립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 : 임학순(2013), 광주문화재단 네트워크 세미나 발제자료 ; 대구경북연구원(2004), '대구문화인프라운영, 네트워크로 내실화'에서 재인용

〈그림 1〉 전라북도 문화기관·단체운영협의체와 지역문화 네트워크(안)

4) 새로운 ‘융합형 문화시설’ 도입

-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전라북도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융합형 문화시설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예술치료 및 문화콘텐츠치료 전문시설

- 예술치료는 “음악·미술·연극·문학·무용 등 예술장르를 체계적으로 사용해 현재의 제한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심리·사회·운동치료”임⁶⁾
 - 연극치료, 미술치료, 게임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문학, 영화치료 등
- 2011~2012년은 예술치료에 대한 관심에서 문화콘텐츠의 감성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음악치료, 푸드테라피, 시치료, 인문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이 나타남⁷⁾
 - 2012~2013년은 전문적으로 예술치료를 지향하여 부산대의 예술치료학과 개설, 국내 최초 관동대 의대 명지병원의 종합예술치료센터 등이 개원하면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진행함
 - 2013년 현재는 제9회 세계예술 치유축제 <아싸라비아>가 경기도 영어마을 양평캠프에서 개최되었으며 예술+치료+놀이를 주제로 개최됐음

■ 지식과 경험 나누는 융·복합 공간

- 전문성에 익숙함을 더하여 이색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이 인기를 얻고 있음
- 주요 사례⁸⁾
 - 제너럴닥터 : ‘인간적 의료’를 내세우며 2007년부터 홍대에 자리 잡음. 카페와 병원을 함께 운영함. 카페는 부족한 병원 운영비를 채워주는 곳이자, 즐겁게 병원을 찾아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됨. 뿐만 아니라 카페는 전시나 공연의 장소가 되기도 함
 - 동네변호사카페 : 의정부시 제일시장에 자리하는 <동네변호사 카페>는 2012년 2월 개업함. 2층은 커피와 케이크를 판매하는 카페, 3층은 의뢰인과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구성됨

■ 해양문화시설⁹⁾: 1곳도 없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

- 해양문화시설의 분포현황 : 전국에는 모두 46개의 해양문화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공립, 사립, 대학시설 등 그 어떤 해양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조사됐음
- 해양수산부는 해양문화시설 계획이 포함된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2014~2023)을 수립함
 - 중장기적으로 해상박물관, 해상미술관 등 새로운 해양문화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해양문화시설의 지역별 입지 적정성 연구’ (2013년 12월)를 수행함

6) 『창조산업과 콘텐츠』, 4호월 참조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4 문화예술 트렌드분석 및 전망」 참조

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4 문화예술 트렌드분석 및 전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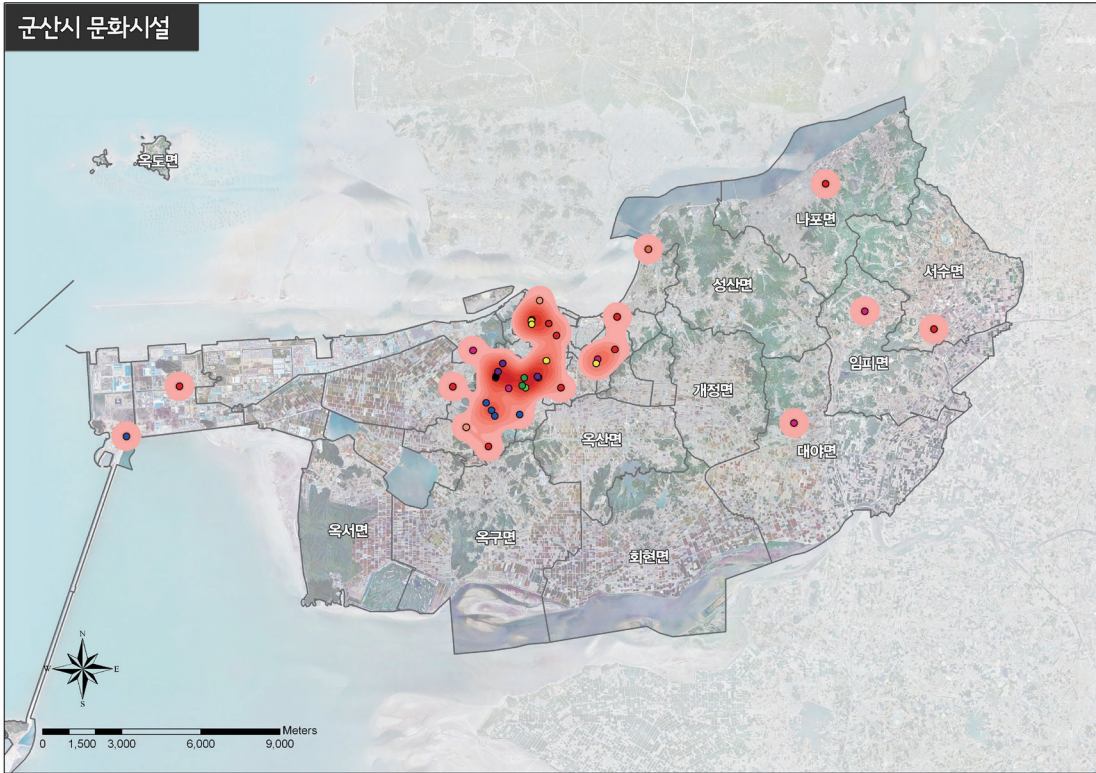
9) 해양문화시설은 해양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일반 대중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시·교육, 체험을 수행하는 시설임

-
- 중소(6,000m² 미만)
● 대형(6,000m² 이상)
- 종합전시시설1개소(장기)
- 화진포해양박물관
- 종합전시시설1개소(장기)
- 해양테마과학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중소형
- 종합전시시설1개소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 울산해양박물관
- 국립수산과학관
-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생물테마파크
- 동영수산과학관
- 해양수산과학관
- 제주해양과학관
-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 진도해양생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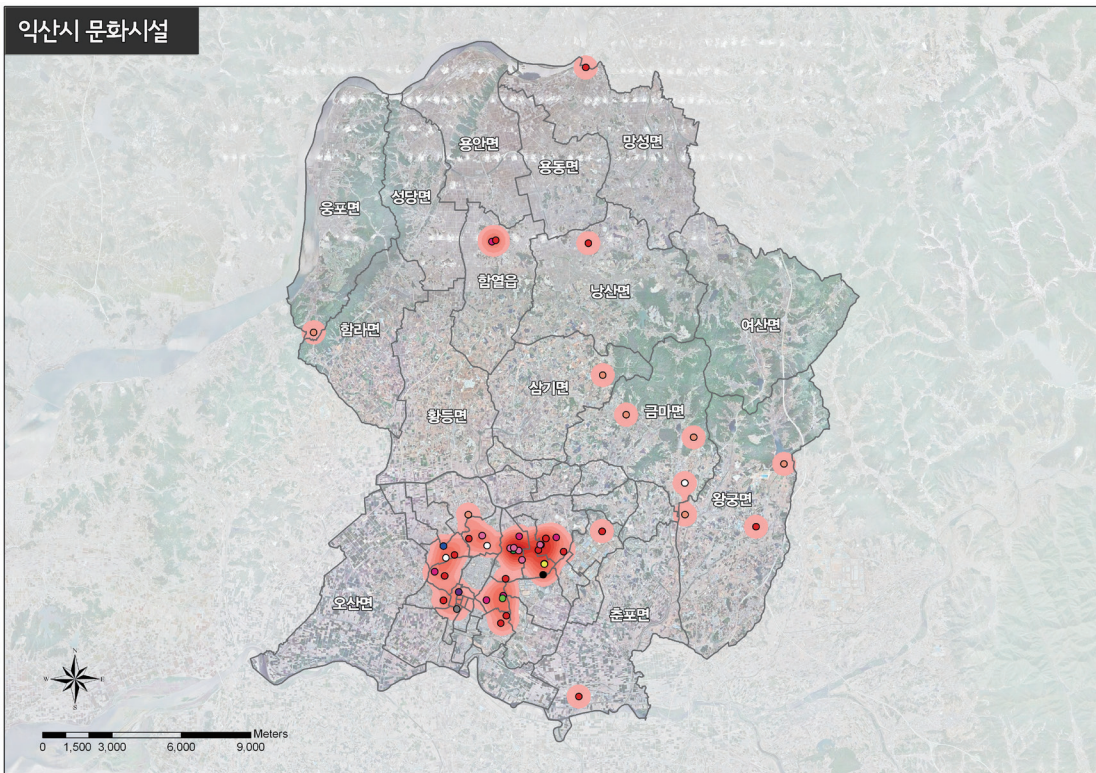
- 전북지역의 시군별 문화시설의 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용인구 및 기존 시설과의 위치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설치되면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됨. 또한,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나 수요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시설을 배치하기 보다는 양적인 확충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음
- 향후 문화시설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이용권 내 인구 및 기존 시설과의 공간적 배치 등을 고려한 문화시설 공급적정성 평가를 거쳐 최적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임
- 즉, 공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수요자의 공간적 분포 및 주요동선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최적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서비스로서 문화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함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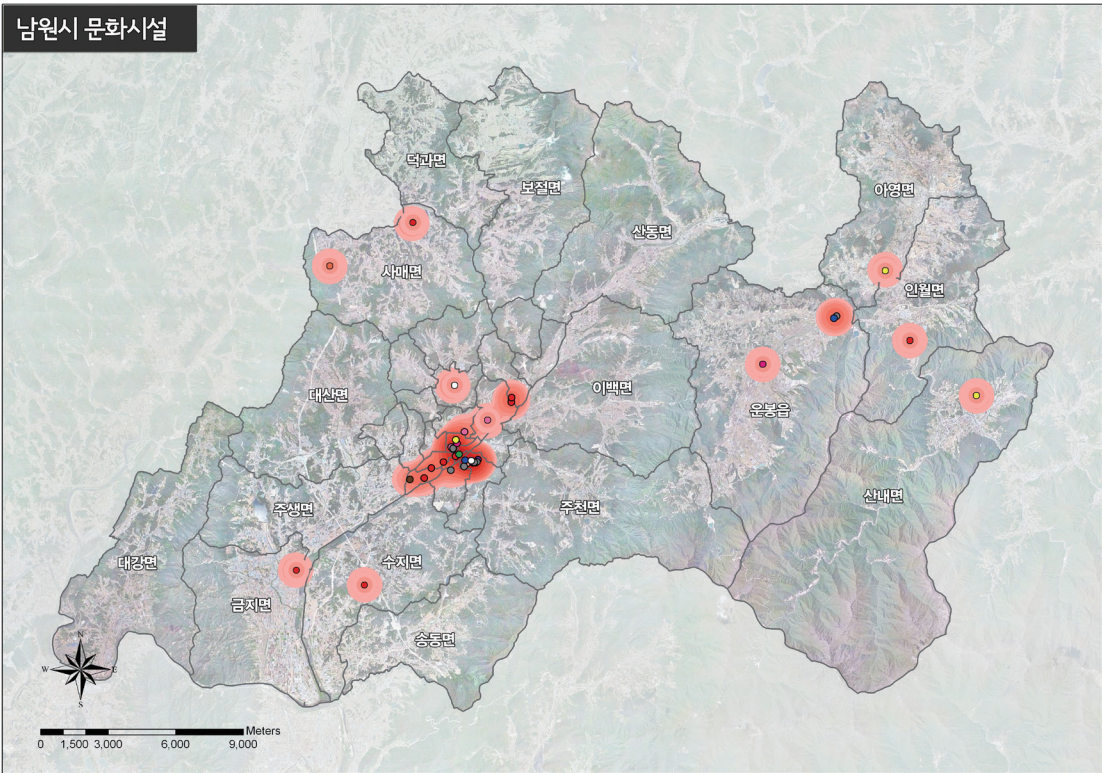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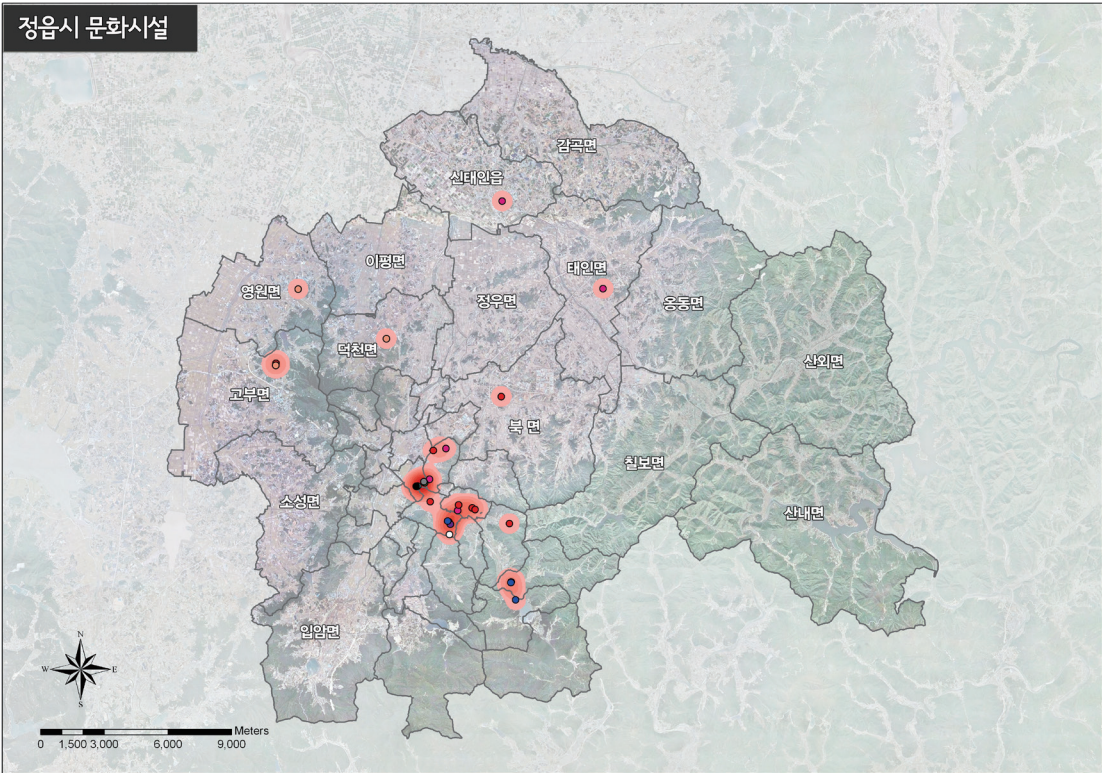
군산시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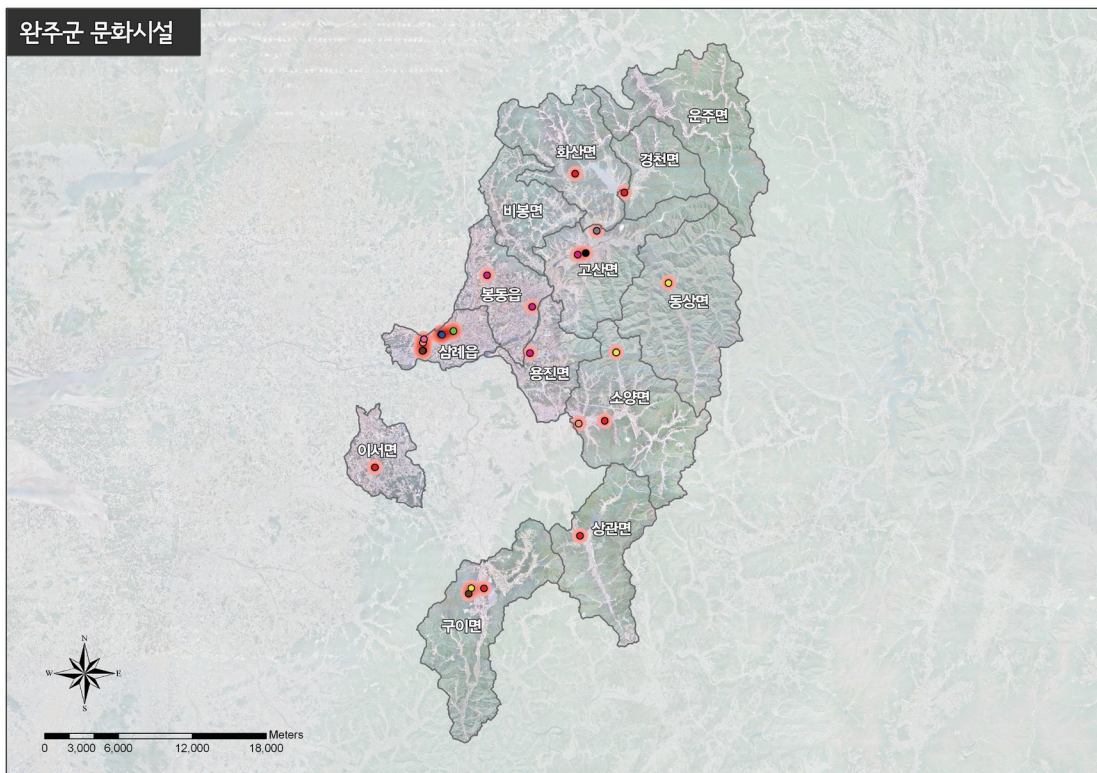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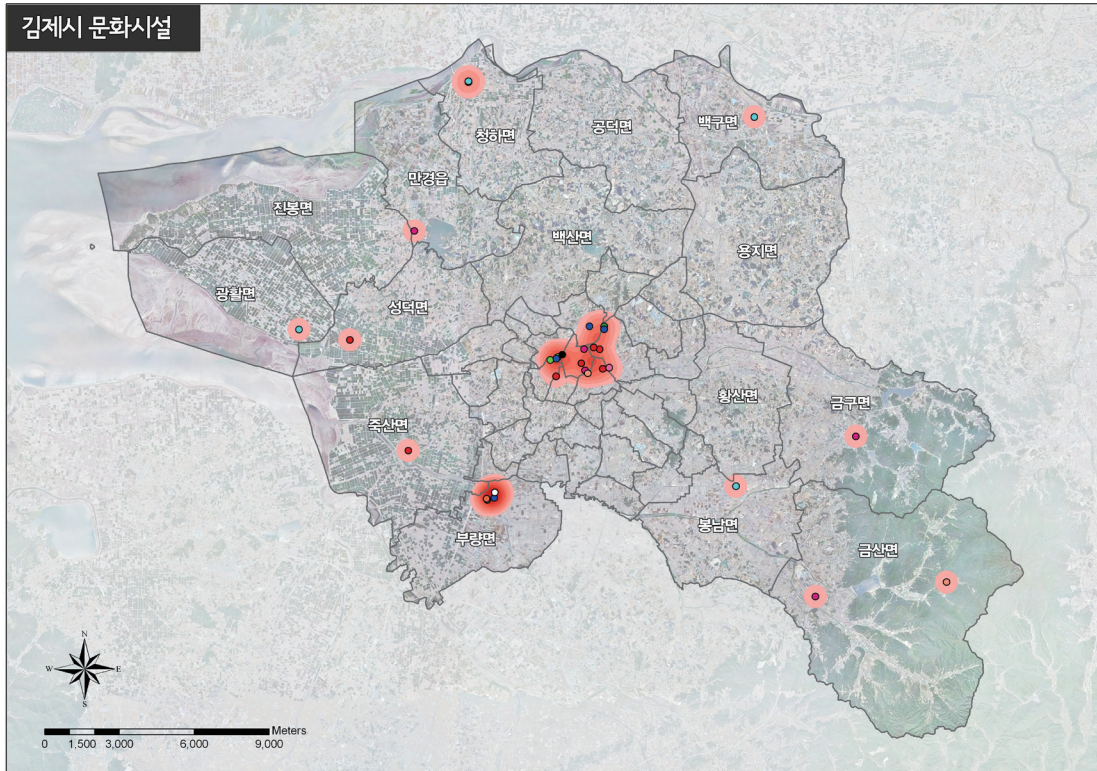
익산시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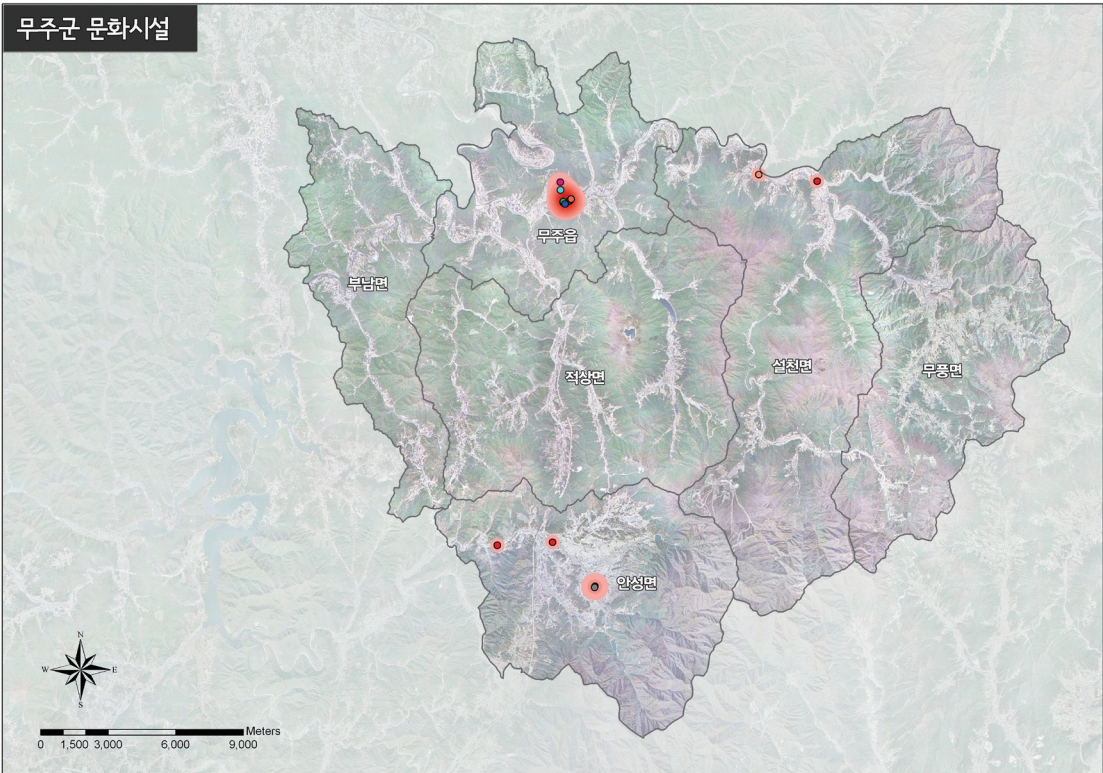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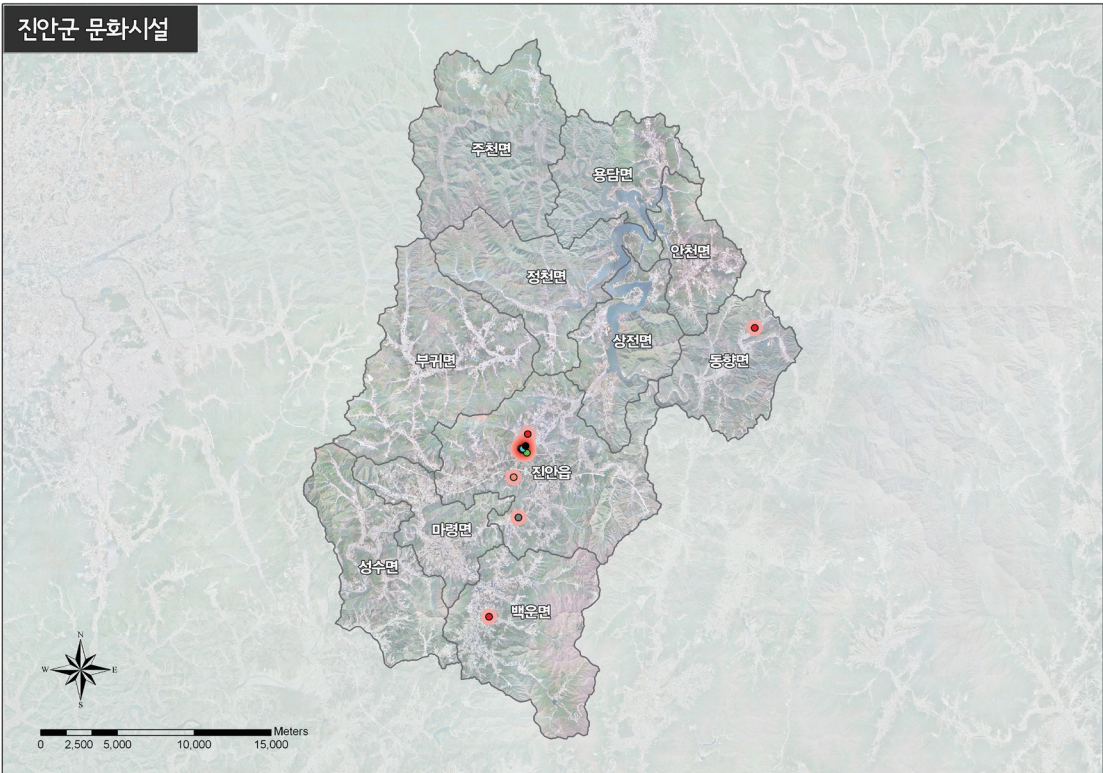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문예회관 ● 문화의 집 ● 문화원 ● 공연장(등록) ● 박물관 ● 미술관
- 사설갤러리 ● 영화관 ● 시설문화센터 ● 시민예술촌 ● 창작스튜디오 ● 야외문화광장 ○ 전수교육관 ●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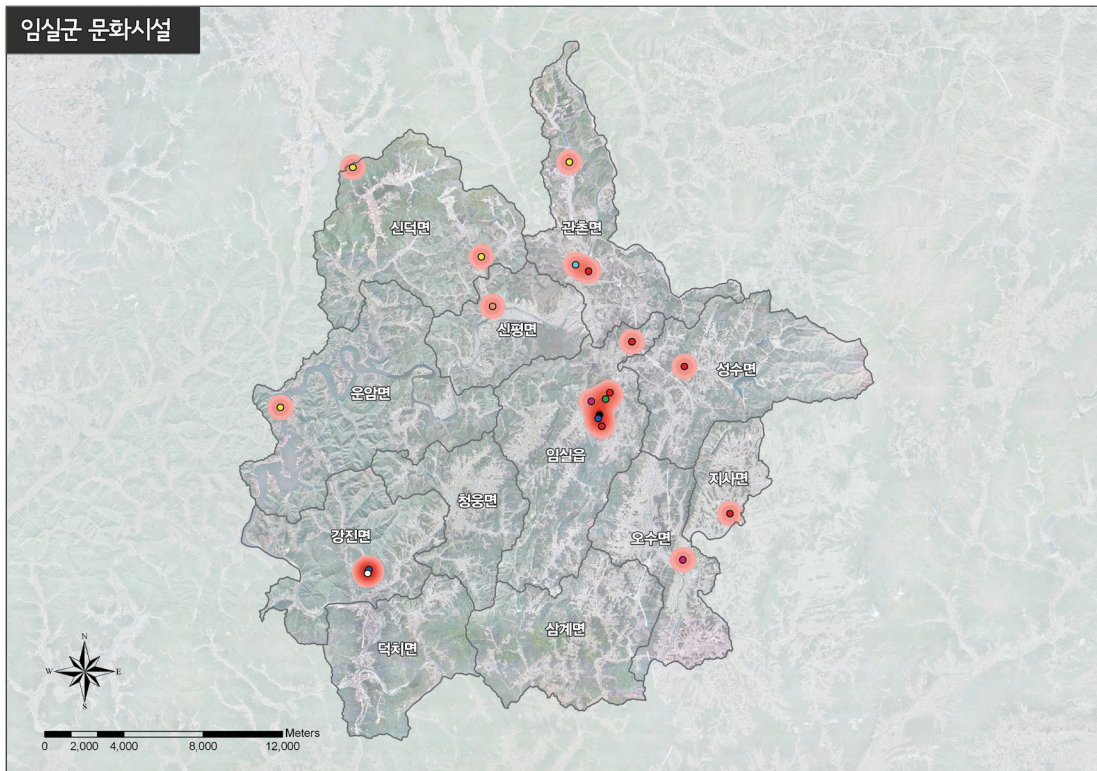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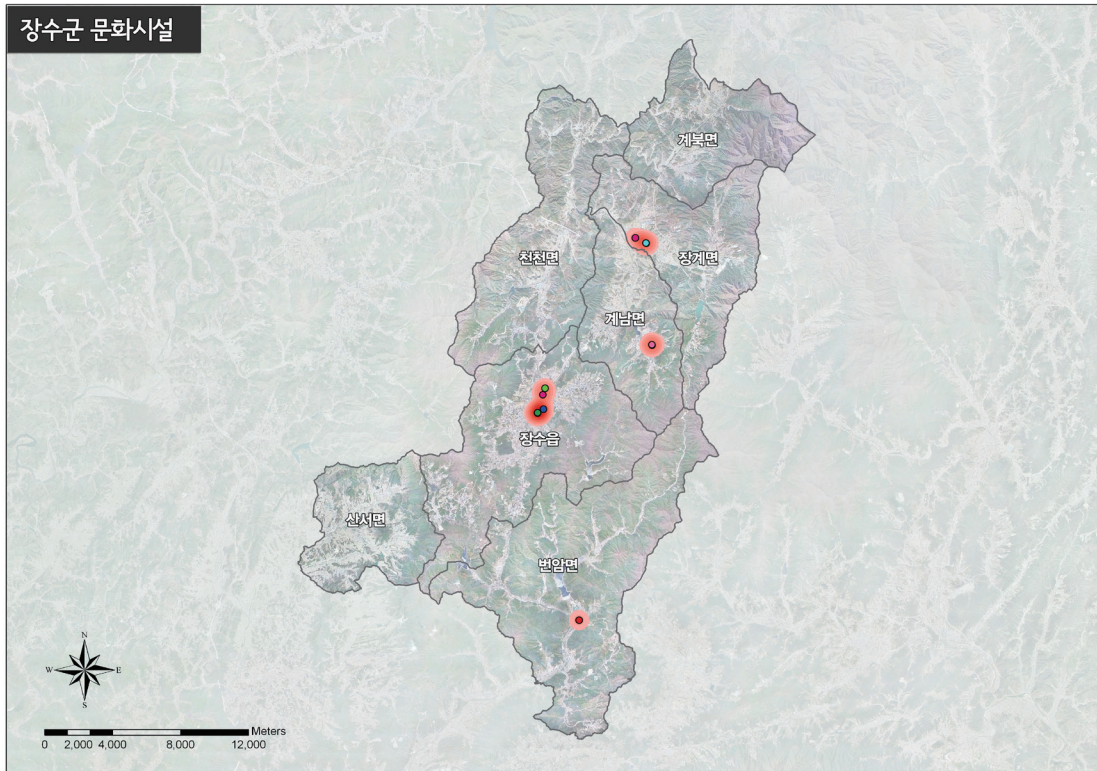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문예회관 ● 문화의 집 ● 문화원 ● 공연장(등록) ● 박물관 ● 미술관
- 시설갤러리 ● 영화관 ● 시설문화센터 ● 시민예술촌 ● 창작스튜디오 ● 야외문화광장 ● 전수교육관 ●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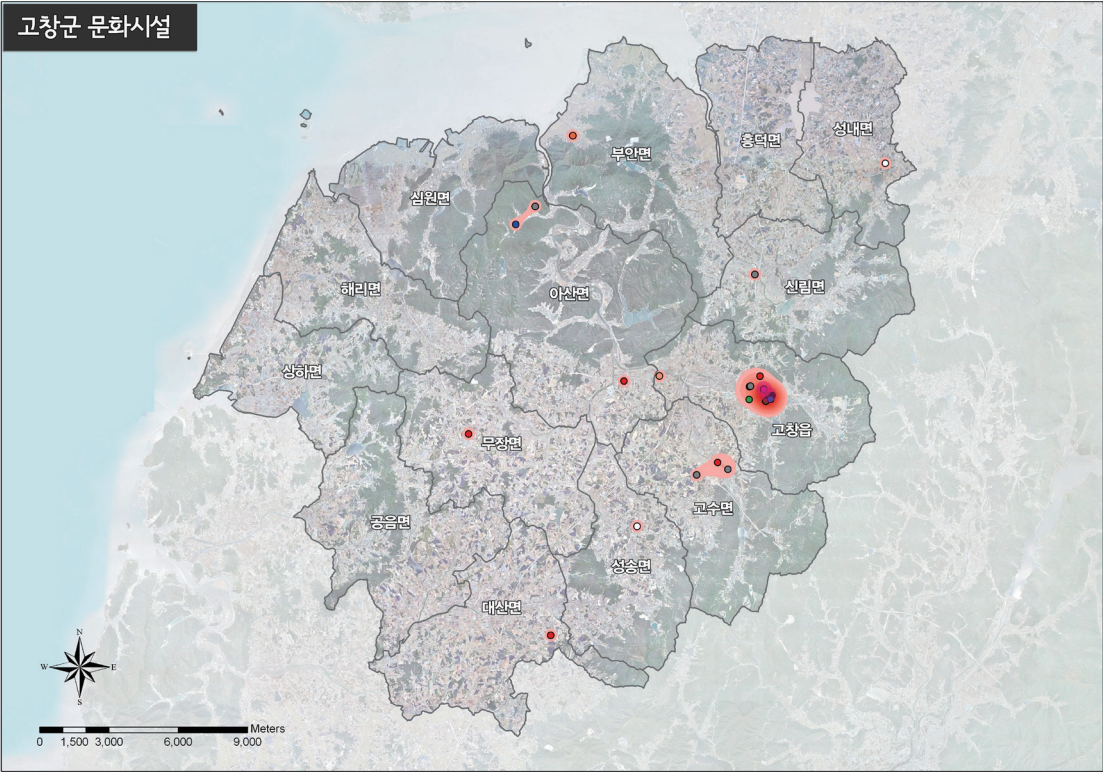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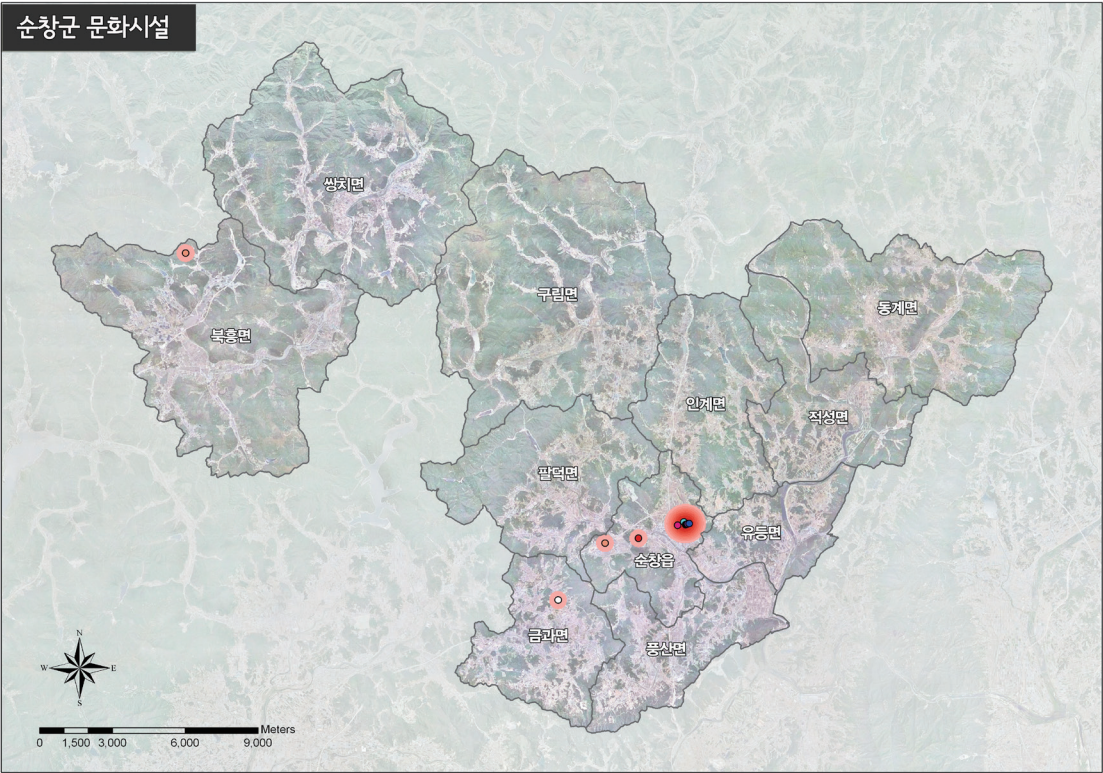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문예회관 ● 문화의 집 ● 문화원 ● 공연장(등록) ● 박물관 ● 미술관
- 사설갤러리 ● 영화관 ● 시설문화센터 ● 시민예술촌 ● 창작스튜디오 ● 야외문화광장 ○ 전수교육관 ● 문학관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문예회관 ● 문화의 집 ● 문화원 ● 공연장(등록) ● 박물관 ● 미술관
- 사설갤러리 ● 영화관 ● 시설문화센터 ● 시민예술촌 ● 창작스튜디오 ● 야외문화광장 ○ 전수교육관 ● 문학관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문예회관 ● 문화의 집 ● 문화원 ● 공연장(등록) ● 박물관 ● 미술관
- 사설갤러리 ● 영화관 ● 시설문화센터 ● 시민예술촌 ● 창작스튜디오 ● 야외문화광장 ○ 전수교육관 ● 문학관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문예회관 ● 문화의 집 ● 문화원 ● 공연장(등록) ● 박물관 ● 미술관
- 사설갤러리 ● 영화관 ● 시설문화센터 ● 시민예술촌 ● 창작스튜디오 ● 야외문화광장 ○ 전수교육관 ● 문학관

